

# 영화, 영사기 그리고 ‘청계천’\*

## - 냉전기 영화상영 기술 확산의 비/합법성 -

위경혜\*\*

### 〈차 례〉

- 머리말
- 한국전쟁 이후 영화상영 확대와 영사기술 확산
- 1960년대 영사 기자재 보급과 확산
- 비합법과 불법 사이 기술 보급
-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영화 기자재를 중심으로 냉전체제 아래 국 민국가 질서에서 기술 보급의 성격과 확산의 의미를 살핀 것이다. 당시 영화는 국민 정체성 강화와 미국 정점의 문화 질서를 구축하는 데 동원되면서 극장 유형에 상관없이 전국에 걸쳐서 상영되었다. 영화상영은 영사기에 대한 수요를 요청했고 그것은 영화 일반에 관련된 기술 확산을 의미했다. 국가는 정권 장악 매체로서 영사기를 요청했고, 영화산업은 제작과 상영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여 관련 기자재를 원했다. 하지만 국가는 경제개발 논리와 기능공 양산에 편향된 기술 정책으로 영사기를 수입에 의존했고, 영화산업은 국내의 낮은 기술력 때문에 일본의 영화계와 사적인 연결망을 형성하면서 기자재를 들여왔다. 특히, 영화산업과 연결된 민간 영역의 영화 기자재 유통은 미군 부대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밀수는 복제 또는 모방이라는 영화 기자재의 국산화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다. 영화 기자재의 보급과 제작 및 기술 확산은 ‘청계천’으로 불리는 전자상가를 거점으로 비/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뤄졌다. 냉전기 영화상영 기술은 경제개발 전략과 기술 정책 그리고 영화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형성되었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7937).

\*\*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주제어] 영사기, 영화 기자재, 기술, 청계천, 비합법성, 밀수, 미군 부대, PX, 이노우에 강, 전원촌

## 1. 머리말

한국전쟁 이후(약칭 전후) 영화는 국가(영토)의 경계와 국민 정체성 형성 및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동원되었다.<sup>1)</sup> 행정상 군(郡) 단위 비도시 지역까지 상설극장(약칭 극장)이 들어선 1960년대 초중반 이후에도 국민 계몽과 오락 제공을 내세운 영화상영은 극장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1960년대 초반 인구의 급증과 군부 정권 등장에 따른 민심 순화를 위한 영화상영은 서울 변두리 하층민을 대상으로 38개 지역에서 순회하면서 전개되었다.<sup>2)</sup> 영화상영의 전국화는 기술(technology) 즉, 영사에 관련된 각종 기자재와 기술 확산을 의미했다.

영사기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민족주의를 표방하거나<sup>3)</sup> ‘자유 세계’의 모델로서 미국 문화의 소개 및 전파 수단으로 국내에 유입되었다.<sup>4)</sup> 영사 관련 기자재의 확산을 촉진한 요인은 전후 냉전의 문화 질서 형성을 위한 미디어 환경의 구축이었다. 전후 ‘자유 세계’의 원조와 네트워킹 형성을 목표로 활동한 국제적 에이전시(agency) — 아시아재단과 유네스코 그리고 주한 미

1) 한국전쟁 휴전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54년 4월 공보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지사 앞으로 공문을 보낸다. 공문은 공보처에서 제작한 ‘풍토기록영화’ <독도>의 극장 상영을 촉구하면서 ‘국토방위와 민족의식을 견고히’ 보급하기를 바랐다. 『문화영화 독도 상연 보급에 관한 건』, 1954, 공보처, 국가기록원(BA0791572).

2) 서울시는 공보부 후원으로 서울 시내의 영세민 거주 38개 지역에 뉴스영화와 극영화를 순회 상영했다. 상업 극영화는 <흥>(권영순, 1960), <박서방>(강대진, 1960) 그리고 <한 번만 봐주세요>(김화량, 1958)와 같이 개봉 이후 최소 2년이 지난 작품이었다. 『시민위안영화회 38개 지역을 순회』, 『조선일보』, 1962년 10월 24일, 6쪽.

3) 일제강점기 아나키스트 사회운동가이자 해방 이후 제일동포거류민단 초대단장을 지낸 박렬은 자신이 경영한 공장에서 제작한 35mm 휴대용 영사기 1개를 공보처장에게 기증했다. 『영사기 1대를 공보처에 기증 박렬 씨의 미거』, 『동아일보』, 1950년 6월 14일, 2쪽.

4) 1950년 5월 하와이 호놀룰루에 소재한 수출입 상사에서 서울 한국미식축구협회에 선물을 보냈다. 이는 축구 관련 용품뿐만 아니라 영사기 등을 포함했다. 『운동구 18고리 미 상사서 기증』, 『경향신문』, 1950년 5월 14일, 2쪽.

국공보원 등 — 의 협력은 시청각 미디어를 부상시키고 각종 시청각 단체의 등장을 가져왔다. 슬라이드와 같은 시청각교육 관련 기자재의 국내 유입은 한국전쟁에 동원된 영화가 일상생활 내로 재배치되는 과정을 의미했다.<sup>5)</sup>

하지만 시청각 기자재의 '공식적인' 유입이 교육 또는 상연 현장까지 도달 여부를 비롯해 그것의 유통 과정과 배치 방식에 관한 내용은 알기 쉽지 않다. 공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기자재가 주관 기관 관계자의 사유로 전환된 경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55년 운크라(UNKRA) 원조로 들여온 영사기자재 장착 차량은 성인 대상 시청각교육에 사용하려고 했던 목적과 달리,<sup>6)</sup> 문교부 국장 개인의 전용물이 되었다.<sup>7)</sup> 또한, 전쟁 구호물자로 들여와 고등교육 기관에 배정될 예정이었던 영사기는<sup>8)</sup> 유엔한국위원회 사무소를 부수고 16mm 영사기를 훔치는 대담한 범죄가 발생하는<sup>9)</sup>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은 국민국가 형성과 냉전체제 구축에 필요했으나 안정적인 보급을 보장할 수 없었던 전후 영사기의 유통과 확산 그리고 관련 기술의 역사적 성격에 주목한다. 이는 국가와 영화산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민간 영역의 영화 관련 기술 확산이라는 미디어 환경 구축의 실제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후 영화상영 확대와 영사기술의 보급을 알아보고 국가 권력의 영사기자재 도입의 목적을 살핀다. 이후 영화 산업과 관

5) 한국전쟁 이후 아시아재단, 유네스코 그리고 미국 해외정보국(USIA) 현지 기관인 주한 미국공보원(USIS, Korea) 등 국제적인 에이전시들이 한국의 냉전 미디어 환경 구축에 관여했다.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 이순진, 『한국전쟁 후 시청각 미디어의 배치와 냉전의 미디어 네트워크』, 『한국학연구』 4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8, 85~118쪽; 공영민, 「1950년대 저개발 세계의 기초교육과 시청각교육 - 유네스코의 활동과 한국 신생활교육원을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65,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2, 373~406쪽.

6) 운크라라는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을 말한다. 1953년도 운크라 교육원조계획에 따라서 3대의 계몽선전용 승용차가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도착했다. 이들 차량은 영사기와 환등기 그리고 스피커와 녹음기 등 장치를 갖췄다. 『영사기가 달린 계몽차 운크라 원조로 3대 도착』, 『조선일보』, 1955년 1월 29일, 3쪽.

7) 『여비없이 못 간다오!』, 『조선일보』, 1955년 8월 17일, 1쪽.

8) 『각 대학 영사기 합동경위서 배정』, 『경향신문』, 1953년 8월 4일, 2쪽.

9) 1953년 10월 18일 오후 2시경 부산시 남포동 소재 '유엔한위' 사무소 휴게실 자물쇠를 부순 괴한이 16mm 영사기와 현금 99,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한위사무소(韓委事務所) 절도』, 『조선일보』, 1953년 10월 22일, 2쪽.

련된 민간 영역의 영화 기자제 유통 방식을 살핀다. 또한, 영사기 보급의 주요 거점이었던 ‘청계천’으로 상징되는 세운상가 일대 전자상가의 형성과 성격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상영 현장의 기술자 또는 극장 운영자의 사례를 들어서 영화 관련 기술 보급과 확산이 냉전체제에서 의미하는 바를 살핀다. 나아가 비/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뤄진 전후 영화상영 기술 확산이 냉전기 기술문화 전파와 수용 과정이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 2. 한국전쟁 이후 영화상영 확대와 영사기술 확산

1950년대 전후 한국사회의 영화상영 시장은 가설극장의 전성과 신설 극장의 증가가 혼재한 상태였다. 국가 재건 담론과 함께 신축 극장이 등장하는 한편으로 전후 사회 질서의 혼란으로 비합법적인 흥행 시장이 형성되었다. 1950년대 중반 무허가 상설 또는 가설극장 숫자는 전국 78개소에 달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제대 군인 후생사업을 앞세운 국방부 산하의 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다.<sup>10)</sup> 무허가 상태에서도 매일 영화를 상영한 가설극장은 행정기관과 언론사까지 가세하면서 늘었다.<sup>11)</sup> 또한, 1950년대 후반 도시에 집중된 극장이<sup>12)</sup> 1960년대에 접어들어 비도시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영사 기자제를 요청했다. 상설극장의 제도화와 함께 무허가 가설극장은 차츰 사라졌지만, 극장 건물 이외의 공간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순업(巡業)은 1970년대까지 비도시의 영화 소비 방식으로 남아있었다. 영사 기자제는 계속해서 필요

10) 「무허가 극장 전국에 78개소」, 『조선일보』, 1956년 10월 21일, 2쪽.

11) 이들은 대전 문화관(대전시청 배경)과 군인극장(군 배경) 그리고 대구 육군중앙극장(제2군사 배경)이었으며, 전북 지역은 “모 신문사 사장을 배경”으로 둔 이리문화관이었다. 「무허가설극장 강력 단속 진정 극장협회에서」, 『동아일보』, 1959년 6월 30일, 3쪽.

12) 1959년 전국의 극장은 10만 명이 1개 관 풀이었으며 영화관람 횟수도 1년에 0.5회에 불과했다. 같은 해 극장협회 통계에 따르면, 전국 207개 극장 가운데 대략 5분의 1에 해당하는 42개 극장이 서울에 집중되었고 부산 31개와 대구 14개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극장실태」, 『동아일보』, 1959년 6월 26일, 4쪽.

했다.

영사기에 대한 필요는 영화산업에 국한되지 않았다. 반공 이념에 바탕을 둔 국민국가 형성과 미국 정점의 문화냉전 체제 형성에 영화를 동원하면서 이동 영사 활동이 전개되었다. 1961년 8월 한 달만 보더라도 이동 영사 주최 기관은 도(道) 이동영사반, 미국공보원영사반, 농림부영사반, 보사부영사반 그리고 기타정부영사반 등 다양했으며, 상영횟수는 2,626회에 달했다.<sup>13)</sup> 이는 1960년대 초반 농민이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총인구의 22.1%에 해당하는 약 400여만 명이 문맹자인 상황을 반영한 조치였다.<sup>14)</sup> 이동 영사를 수행한 기관 가운데 영사기의 공급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미국공보원과 그곳의 후원으로 개원한 문화원이었다. 문화원 활동가들은 미국공보원으로부터 16mm 빅터(Victor) 영사기를 지원받으면서 사용법까지 익히고 순회 상영에 나섰다.<sup>15)</sup>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지역에 보급된 영사기 가운데 16mm가 주종을 이룬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16mm 영사기는 한국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했을 때 휴대성과 이동성이 좋은 기계였다.<sup>16)</sup> 또한, 산골 지역까지 순회한 흥행사에게 경량의 영사기는 제격이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초반 순업은 경남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마루턱까지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이 갖춘 장비는 녹슨 영사기와 녹음기 그리고 10여 개의 한국영화였다. 산골 마을까지 찾아가서 광목 포장을 이용한 스크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들이 갖춘 영사기는 35mm이었을 확률은 낮아 보였다.<sup>17)</sup>

13) 공보부 조사국, 『각종홍보선전간행물배포: 각종영사반순회상영실태조사보고서』 1961년 9월 12일 현재, 30쪽.

14) 「새해에 새 정부가 구상한 농촌문화진흥책」, 『조선일보』, 1961년 1월 14일, 4쪽.

15) 문화원의 상영 품목은 <리버티뉴스 Liberty News>를 비롯한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였다. 이기화 기술·위경혜 면담, 「한국전쟁이후 1960년대 이동영사 활동 증언 자료 수집: 전라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국사편찬위원회, 『2009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OH\_09\_019\_이기화\_11』, 1-70.

16) 16mm 영사기 특징과 관련한 그레고리 월러(Gregory A. Waller)의 연구는 시사적이다. 그는 16mm 영사기의 휴대성에 주목하고 1942~1945년까지 해외 주문 미군에게 오락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할리우드 필름의 16mm 프린트 보급을 규명했다. 그는 16mm 영사기와 프린트 덕분에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Gregory A. Waller, "Projecting the Promise of 16MM, 1935-45", (Eds.) Charles R. Acland & Haidee Wasson, *Useful Cinema*, Duke University Press, 2011, pp. 125-148.

### 3. 1960년대 영사 기자재 보급과 확산

#### 1) 대국민 선전을 위한 영사 기자재의 제작과 수입

1950년대 전후 영화 기자재의 보급과 유통은 군부대와 다양한 루트로 연결된 민간인에 의해 이뤄졌다. 전후 미군 부대 일부분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파손된 전쟁 무기부터 일상 생활용품까지 군수물자를 공개 매각했다. 이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자들은 일제강점기부터 극장가를 중심으로 폭력 집단을 형성한 김두한 일당이였다.<sup>18)</sup> 자유당 정권과 결탁한 군부대의 부패 역시 영화 기자재의 불법적인 판매 시장을 형성한 요인이었다. 군부는 정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 확보 수단으로서 미국 원조물자를 민간인에게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영사에 필요한 일련의 기자재 — 휘발유와 군용 차량 대여 등 — 가 시장으로 흘러들었다.<sup>19)</sup>

1960년대에 접어들어 국가는 영사 기자재 유통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했다. 경제개발의 단계별 정책 수립과 더불어 추진한 자동차산업과 결합한 영사 기자재 생산은 집권과 관련되었다. 공보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자동차를 동원한 이동 영사에 나섰다. 차량을 동원한 이동 영사는 전국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기동력을 의미했다. 공보부는 제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시군에 영사용 지프(jeep) 차량 배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sup>20)</sup> 1966년 ‘신진자동차공업’에게 순회용 영사 차량 70대를 제작하도록 주문했

17) 해당 순업이 상영한 영화는 <외나무다리>(강대진, 1962)와 <또순이>(박상호, 1963) 등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품들이었다. 『현실(15) 신관 ‘유랑극장’: 가난한 두메에 한 가닥 낭만이』, 『동아일보』, 1963년 9월 3일, 1쪽.

18) 유지광, 『대명(1)』, 홍익출판사, 1984, 215~222쪽.

19) 전후 전남 진도군과 대전시 순업 흥행사들의 미제 16mm 영사기와 군대용 발전기 구매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박종민 구술·위경혜 면담, 『한국전쟁이후 1960년대 이동영사 활동 증언 자료 수집: 전라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국사편찬위원회, 『2009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OH\_09\_019\_박종민\_11』, 1-87.

20) 자동차를 이용한 영사 활동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매번 이뤄졌다. 이승만 정권은 1960년 제4대 대선을 앞두고 각 시군에 영사용 지프(jeep)를 한 대씩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명년부터 배치계획 전남도내에 영화차』, 『동아일보』, 1959년 11월 26일, 4쪽.

다. 신진자동차공업은 소형승용차부터 대형버스까지 생산한 한국 유일의 종합 자동차 제조사였다.<sup>21)</sup>

순회를 위한 차량은 우선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그리고 전북에 배치되었다. 이후 경상도와 전남 그리고 제주도에 배정할 예정이었다. 이들 차량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비도시 지역에 집중하여 2개 군에 1대꼴로 배당되었다. 공보부는 영사 차량 구매를 위해 선전비 1억 2천여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6천만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주문 차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35대의 자동차는 녹음기와 영사기 그리고 발전기까지 갖췄는데, 공보부는 이를 “도시와 농어촌에 문화 혜택의 균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sup>22)</sup> 하지만 그것은 1965년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으로 국민 저항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의 조치였다.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3)</sup>

1960년대 후반 박정희 정권은 영사 기자재 보급을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했다. 국립영화제작소 필름 현상 기술자로 근무한 박남기에 따르면,<sup>24)</sup> 1969년 삼선개헌 이후 박정희 정권은 면(面) 단위 지역까지 8mm 영화상영을 계획했다. 1970년 여름 박남기가 현상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연

21) 신진자동차공업(주)는 1962년 9월 5일 허가를 받은 부산에 소재한 차량 조립업체 신진공업사에서 출발했다. 1962년 ‘중·대형 자동차 조립공장’ 승인을 받았고, 1964년 ‘소형승용차 제조공장’ 허가를 취득하여 승용차를 제조했다. 1964년 8월 20일 ‘자동차공업 종합육성계획’에 의하여 국내 유일의 종합조립공장으로 선정되었다. 1966년 1월 상호를 신진자동차공업(주)로 변경했고, 소형 코로나를 생산하면서 증가하는 택시 수요에 부응했다. 또한, 1966년 8월 디젤엔진을 수입해 대형 버스를 생산하면서 명실공히 한국의 유일한 종합 자동차 제조사가 되었다. 김천욱 지음,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사』, 해남, 2002, 44~52쪽.

22) 「영화차 70대 배정」, 『동아일보』, 1966년 4월 9일, 7쪽.

23) 1967년 5월 3일 제6대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의 재선으로 끝났다. 그것의 원인으로 경제 성장과 상대편 윤보선 후보의 구태의연한 모습이 지적되었다. 같은 해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의 타락한 선거운동 참여와 막대한 자금 살포 그리고 박정희의 지방 유세와 선심성 공약 남발 등으로 이어졌다. 공화당은 야당인 신민당을 누르고 개헌선을 넘는 의식을 확보했다.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1948제헌선거에서 2007대선까지』, 역사비평사, 2008, 143~151쪽.

24) 박남기는 1961년 5월 16일부터 국립영화제작소에서 현상 기술자로 일했다. 그는 정부의 슈퍼(Super) 8mm 인화기 구매와 사용법 숙지 임무를 부여받고 1970년 8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미국과 일본에서 기술연수를 받았다. 귀국 이후 3개월 동안 8mm 영화 프린트 제작 업무를 도맡아 수행했다. 박진희, 「박남기」, 『2020년 한국영화사 기술채록연구 시리즈 <생애사>』, 한국영상자료원, 2020, 193~195쪽.

수를 떠나기 이전에 이미 최소 1,500대의 '슈퍼(Super) 8mm' 영사기와 인화기, 그리고 녹음기에 대한 주문이 끝난 상태였다. 박남기가 시카고의 벨 앤 하웰(Bell & Howell) 공장에 들러서 영사기 제작 현장을 견학한 사실로 보아 이들 기계의 종류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1970년 3월 문화공보부는 홍보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영사기 배포를 계획하면서 3개 면에 2대꼴로 8mm 영사기의 배부를 발표했다. 내무부는 예산 1억 원을 들여서 922대의 영사기와 더불어 같은 수량의 발전기 구매를 결정했다.<sup>25)</sup> 면 단위 지역까지 영화를 동원한 홍보 활동 매진은 박정희 정권의 안보체제 구축과 관련되었다. 당시 정권은 농촌근대화를 통하여 '농촌 안정화'를 추구하면서 마을 단위까지 기반을 다지는 행정 방식을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비도시 지역 사회의 동조체제를 강화했다.<sup>26)</sup>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영화만큼 효과적인 매체는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1960년대 국가 권력의 영사기 보급은 경제개발 논리와 함께 추진되었지만, 미발달된 기술력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 시장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했다.

## 2) 사적인 연결망을 통한 영화 시장의 비/합법적 유통

1950년대 영화산업 영역에서 유통된 영사 기계와 부속품의 규모 그리고 입수 경로에 관한 문헌 정보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록은 시청각 미디어에 대한 관념을 구축한 1950년대 후반이었다. 1957년 6월 발족한 대한문화영화연구소가 8mm와 16mm 영사기를 보급하면서 영사기 제작업체 미국의 벨 앤 하웰과 촬영기 제작사 스위스의 파야르 볼렉스(Paillard Bolex)의<sup>27)</sup> 한국 총대리점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이다.<sup>28)</sup> 하지만

25) 「문공부 홍보 활동 강화위해 면에 영사기를 배부」, 『동아일보』, 1970년 3월 13일, 7쪽.

26) 허은, 「박정희 정부시기 농촌사회 재편과 지역 총력안보체제 구축 - 구성면 면정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 『사총(史叢)』 8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5, 36~49쪽.

27) 볼렉스(Bolex)는 TV 보도용으로 널리 사용했던 스위스제 16mm 카메라이다. 1953~1955년 서라벌예대를 다녔던 촬영기사 전조명은 해당 학교가 보유한 카메라로 영화를 촬영했다. 한국영상자료원 위음, 『한국영화사 구술총서 02: 한국영화를 말한다 -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1』, 도서출판 이채, 2005, 362~363쪽.

공식적인 기록은 이것에 한정된다.

1960년대 영사 기자재 확산은 영화제작 현장에 참여한 자들의 구술을 통해 살필 수 있다. 당시 영화 관련 기자재는 촬영 분야 종사자들의 사적인 연결망을 통해 유통되었다. 영화제작 현장의 기술 보급에 있어서 주목할 인물은 일본인으로 귀화한 이노우에 강(한국명 이병우李炳宇)을 비롯해 1960년대 중반 서울 명보극장 옆에서 '영공사'를 운영한 전원춘 등을 들 수 있다. 이노우에 강의 존재는 일제강점기 최남주의 조선영화주식회사 창립 작품인 <무정>(박기채, 1939)의 촬영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이노우에 강은 일본에서 촬영 분야에 종사했으며 동경 예술영화사의 카메라맨 신분으로 <무정> 작업에 합류하고자 조선을 방문했다.<sup>29)</sup>

하지만 해방 이후 이노우에 강의 구체적인 행적은 알려지지 않는다. 다만 그가 신상옥 감독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sup>30)</sup> 영화제작 현장의 영화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도 그는 영화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 이전 일본 제품을 국내에 유통한 점에서 주목된다. 1950~1960년대 이노우에 강은 일본의 기자재를 한국에 판매한 중개인(broker) 역할을 담당할 독보적인 존재였다. 촬영감독 전조명에 따르면, “아리프렉스(Arriflex) 제대로 수입상이 생기고 한 게 70년인데, 70년대 무역상이 있어서 수입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sup>31)</sup> 이노우에 강이 10년 이상 일본의 중고 또는 신제품을 한국에 판매했다.<sup>32)</sup> 영화감독 김수용의 구술 증언 역시 이노우에 강의 역할

28) 이순진, 「한국전쟁 후 시청각 미디어의 배치와 냉전의 미디어 네트워크」, 『한국학연구』 4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8, 106쪽 <표 1>. 이 논문은 영화를 비롯한 시청각 미디어의 물적 토대 구축 및 시청각 미디어에 대한 관념의 구성 과정을 규명한 점에서 주목된다.

29) 일제강점기 이병우는 단편 문화영화 제작과 '조선철도국'의 요청으로 조선풍경을 소개하는 영화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 카메라맨 이병우씨 입경(入京)」, 『조선일보』, 1938년 5월 18일, 4쪽.

30) 한국영상자료원, 『안장복: 2011년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생애사>』, 한국영상자료원, 2011, 256쪽.

31) 한국영상자료원, 『2005년도 구술채록 자료집 전조명 [촬영]』, 한국영상자료원, 2007, 29~30쪽.

32) 한국영상자료원 엮음, 『한국영화사 구술총서 02: 한국영화를 말한다 -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1』, 도서출판 이채, 2005, 383쪽.

을 알려준다. 즉, 이노우에 강은 일본에서 ‘아리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기자재 대여와 촬영 조수 조달 등 일본 현지 촬영을 담당했다. 그의 배우자가 일본 5대 영화사인 닛카츠(日活映畫社) 제작부에서 활동한 이력을 지녔기 때문에<sup>33)</sup> 영화촬영 관련 기자재 정보와 한국 내 유통에 관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수용이 <잘 있거라 일본땅>(1966), <망향>(1966) 그리고 <유정>(1966) 등을 일본에서 로케이션 촬영하면서 이노우에 강의 도움을 받고 교류를 지속한 점에서 그의 증언은 신빙성을 갖고 있다.

공식적인 무역상을 통한 촬영기 수입이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전조명의 구술 증언을 보았을 때, 1950~1960년대 영화 기자재는 제작 현장의 사적인 연결망을 통해서 비공식적 또는 비합법적으로 유통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34)</sup> 이노우에 강 이외에 일본을 통한 영화 기자재의 국내 유입에 최단섭 역시 한몫을 담당했다. 제일 조선인 최단섭은 현지에서 기자재 대여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sup>35)</sup> 기자재의 유통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다. 다만, 일제 영사기의 국내 유통 사실은 제작 현장을 넘어서 극장 관련자의 구술 증언을 통해 추가로 파악할 수 있다. 1970~1980년대 초반까지 광주의 중앙극장에서 영화 배급업에 종사한 이양두가 이에 해당한다. 친인척을 중심으로 운영된 중앙극장의 관주(館主) 이월금은 이양두의 이모할머니였다. 이월금은 대호영화사를 운영하면서 호남지역 영화 판권을 다수 보유하여 흥행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일산(日産)이 제일’이었던 당시 그녀는 세운상가 업자들로부터 영사기를 구매했다. 그녀가 거래한 업자들은 일본에서 폐기된 영사기를 구매 및 재조립하여 국내 극장에 판매했다. 이월금은 영사기 고장으로 부품이 필요한 경우 일본 오사카에서 거주

33) 채록연구자 권용숙/기획편집 한국영화사연구소, 『김수용: 2012년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생애사>』, 한국영상자료원, 2012, 218쪽.

34) 전조명에 따르면, 1950년대 말기와 1960년대 초반 국내에서 카메라와 조명기를 대여하는 회사 또는 대여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한형모 감독이 소수의 기자재를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영상자료원 위음, 『한국영화사 구술총서 02: 한국영화를 말한다 -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1』, 도서출판 이채, 2005, 384쪽.

35) 한국영상자료원 위음, 『한국영화사 구술총서 02: 한국영화를 말한다 -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1』, 도서출판 이채, 2005, 383쪽.

하던 자신의 남동생에게 기계 종류와 일련번호를 알려주고 부품을 입수했다.<sup>36)</sup>

비합법적인 연결망을 통해서 국내로 유입된 영화 기자재는 기술 국산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인물이 1964년 '청계천'에서 '영공사'를 설립한 전원춘이었다. 영공사는 카메라와 현상기 그리고 녹음기와 프린터 및 16mm 축소기 등을 개조·수리 또는 제작한 업체였다. 해당 업체가 제일 먼저 만든 기자재는 미국 공보원장을 통해 부품을 입수하고 미국 기계를 그대로 모방한 16mm 축소기였다.<sup>37)</sup> 1950년대 전원춘이 미국공보원에서 영화 기자재 수리와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부품 획득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영공사 첫 작업이 필름 축소기이었던 이유는 순회 영화상영에 적합한 경량의 영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만큼 상영 현장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이다. 1960년대 후반 국내에서 영화 기자재를 조립하고 제작한 유일한 업체는 영공사였다.<sup>38)</sup>

모방을 통한 창조라는 영화 기자재 국산화의 성과는 1967년 '단식입체(單式立體)' 영사기의 발명으로 이어졌다. 카메라맨 김기국과 범한영화기술연구소 장석준이 공동 개발한 해당 기자재는 1대의 영사기를 이용해 상영하는 입체영화 시네마스코프 촬영기이자 프린터였다.<sup>39)</sup> '팬스코프 3D카메라'로 불린 해당 영사기는 렌즈 이외에 모두 국산 재료를 사용해 제작했는데, 카메라와 영사기를 이용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1대의 영사기로 입체감을 살려서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영사기의 스크래치를 대폭 줄이고 필름 프린트의 수명을 연장했기 때문에 영사기사의 수고를 덜어주었다.<sup>40)</sup> 이같이, 촬영 기자재의 개발은 영사기 제작과 연동하여 이뤄졌다. 영사기의 제작은 촬영 관

36) 이월금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광주의 제개봉관 남도극장과 개봉관 중앙극장을 운영했다. 극장과 더불어 운영한 구월영화사는 1970년대 중반 대호영화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1983년 이월금이 작고하면서 극장은 문을 닫았고 이양두는 극장가를 떠났다. 이양두(1953년생)의 구술. 구술 일자 2023년 7월 15일.

37)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기술사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2, 197~199쪽.

38) 1960년대 말 영공사에 입사한 나상원의 증언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기술사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2, 208쪽.

39) 장석준은 1959년 김수용 감독의 <구혼결사대>의 촬영감독으로 영화계에 데뷔했다.

40) 「단식입체(單式立體) 영사기 발명」, 『조선일보』, 1967년 12월 28일, 5쪽.

런 기자재보다 훨씬 수월했다. 영공사 설립과 함께 입사한 송귀만에 따르면, 35mm 영사기는 “촬영기, 인화기, 축소기에 비해서 정밀도나 그런 게 아무 것도 아니”었을 정도로 제작에 어려움이 없었다.<sup>41)</sup> 참고로,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영사기를 수입할 당시 영사기 제작에 특화된 국내 업체가 존재했다. 그것은 충무로 ‘대한극장 옆에 자리한 동아정공’이었다.<sup>42)</sup> 요컨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국내 기술 기반 영화 기자재 생산은 미국과 일본을 통한 기자재 보급과 이를 통한 선진 기술 모방 및 복제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사적인 연결망을 통한 영화 기자재의 보급은 비합법적인 방식에 그치지 않았고 밀수로 불리는 불법의 영역을 오가며 이뤄졌다.

#### 4. 비합법과 불법 사이 기술 보급

##### 1) 미군 부대를 통한 밀수와 영사 기자재의 불법 유통

1950년대 전후 순업에 종사한 상이군인과 퇴역 경찰 흥행사들의 구술 증언에 따르면, 영사 기자재는 미군 부대와 같은 비공식적 통로를 이용해 유통되었다. 미군 부대는 전후 민간인이 영화와 관련된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주요한 장소였다.<sup>43)</sup> 그곳에서 유출된 것은 할리우드 서부극이 대부분이었지만,<sup>44)</sup> 16mm 영사기와 발전기 역시 빠지지 않는 품목이었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 집중된 미군 부대 주둔지는 어김없이 ‘양키 시장’으로 불린 암시장을

41)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기술사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2, 206쪽.

42) 동아정공은 이후 창원공단에 자리한 제일정밀이 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기술사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2, 206쪽.

43) 김장환 목사에 따르면, 전후 어린이의 선행은 미군 부대 ‘하우스 보이’가 되는 것이었으며 어른들에게도 미군 부대는 최고의 직장이었다. 이근미 지음, 『그를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김장환 목사 이야기(上)』, 조선일보사, 2000, 31쪽.

44) 1950년대 후반까지 미군 부대 주변 가설극장은 한글 자막이 없는 16mm 영화를 공공연히 상영했으며, 심지어 이들 ‘쪼가리’ 형태의 푸티지(footage) 필름을 연속으로 상영했다. 위경혜, 「1950년대 ‘굿쟁이’ 이동영사 - 유랑예인 연행과 시각적 근대의 매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5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2012, 197~228쪽.

형성하고 밀수 상품을 거래했기 때문이다.

양키 시장으로 불린 무허가 시장의 존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1948년 '서울의 명물'로 알려진 양키 시장은 서울 시내 10여 개 곳에 4,000여 세대가 자리하였다.<sup>45)</sup> 1960년 11월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미군 PX 물건의 시장 유통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고<sup>46)</sup> 다음 해 4월 '특정의래품판매금지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금지 품목이 장사동에서 거래된 물건을 다수 포함하면서 상인들의 반발을 샀다.<sup>47)</sup> 1965년 박정희는 장기영 경제부총리에게 미군 PX 물자 유출의 엄중 단속과 근절을 지시했지만,<sup>48)</sup> 밀수 시장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1967년 12월 '서울세관특별밀수합동수사반'이 한 달여 동안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의정부와 파주 등 주한 미8군 PX 소재지에서 시가(市價) 2,800여만 원을 초과하는 606건의 물품을 적발했다.<sup>49)</sup> 밀수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었으며 게다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1969년 3월 27일 조선일보 3면 전체를 통해 알려진 밀수 시장은 "PX 경제"로 불릴 정도로 치밀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르포 형식의 신문기사는 세관 직원, 경찰관, 수사기관원, 정부 담당관, 전·현직 미군 PX 종사자뿐만 아니라<sup>50)</sup> 익명의 PX 장사꾼을 취재하여 작성되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PX 물자는 36억 원 정도(월 1백만 달러)로 추정되었다.<sup>51)</sup> 문제의 심각성은 PX 물자 유출이 대규모 단위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에 있었다. 밀수는 일명 '도라꾸메기'로 불린 트럭 1대 분량의 물건을 통째로 빼돌리는 방식이었다. 미군 군수물자 보급창에서 단위부대 또는 지역 간 PX로 물자를 보급하는 척 서류를 꾸미고 수송하는 도중에 가로챘다. 밀수는 부평의 메인 PX를 비롯해 파주, 문산, 춘천 그리고

45) 「코리안 PX 어디로? 시당국일소계화」, 『경향신문』, 1948년 9월 25일, 2쪽.

46) 「외래사치품 단속법안 기초」, 『조선일보』, 1960년 11월 16일, 2쪽.

47) 청계천박물관, 『청계천 기계공구 상가: 장사동·입정동·산림동』, 청계천박물관, 2021, 68쪽; 「상가에서 반발」, 『조선일보』, 1961년 4월 11일, 3쪽.

48) 「미군 PX 물자 유출 엄중 단속」, 『경향신문』, 1965년 11월 1일, 1쪽.

49) 「606건에 2천 808만 원 세관 밀수단속 실적」, 『매일경제』, 1967년 12월 30일, 3쪽.

50) PX는 Post Exchange의 약자이다. 군부대 내부의 매점을 일컫는다.

51) 「PX 경제」, 『조선일보』, 1969년 3월 27일, 3쪽.

동두천 등 미군 부대 PX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유출 품목과 경로 역시 지역별로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이뤄졌다.<sup>52)</sup>

밀수품은 서울 도매시장에 일단 집결된 이후 다시 서울의 주요 장소로 옮겨졌다.<sup>53)</sup> 물건은 유출부터 집하(集荷) 그리고 소매 상가 재유통 등 과정을 거쳤으며, 밀수 상인들은 자금 공급과 수송은 물론 적발에 대비해 수습 담당 전담 부서까지 두었다. 거래자들은 미군 부대 주변 상인과 함께 서울에 본거지를 두고 군수품 기지 내부 미국인 또는 한국인 종사자와 결탁해서 물건을 운반했다. 밀수품 유통업자들은 “거상”으로 불렸으며 남대문, 한남동, 동대문시장, 세운상가, 아세아극장 그리고 신당동 등을 무대로 활동했다.<sup>54)</sup>

PX 밀수품 가운데 영사기의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1971년 주한 미군 제2사단 PX 반장과 운전자 그리고 외래품 상인과 의정부 태국 군부대 PX 지배인이 가담한 사건이었다. 이들은 2,000만 원에 달하는 일제 생필품(raw film) 163개 상자와 영사기 27대를 PX 물품에 끼워 인천항을 통하여 비밀리에 들여왔다. 해당 물품은 의정부 태국 군부대 창고에 은닉된 이후 군인들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었다.<sup>55)</sup> 1960년대 중반부터 ‘영공사’를 통한 영사 기자재의 국내생산이 이뤄지는 가운데 영사기 밀수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었다.

52) 지역별로 특화된 밀수 품목은 다음과 같았다. 즉, 부평(자동차부속 화공 약품, 식료품, 전기기구 등), 평택(양복갑, 철제품), 파주(화장품, 양복갑, 식료품), 문산(철제품, 페인트, 깡통), 동두천(화장품, 전기기구), 미 군사우체국인 APO(기계 부속품, 귀금속 등) 그리고 미군·미군 위안부와 미군 부대 종업원 등을 통하는 방법이었다.

53) 밀수 물건의 판매를 위한 주요 유통 장소는 다음과 같았다. 즉, 남대문시장(도깨비굴과 식품부), 동대문시장(광장양품부와 식품부), 아세아극장(전기 기구상), 신당동 하치장 부근, 한남동 ‘외인 부락’, 기타주택가 도매상(호자동 진명여고 앞, 청과동 숙대 뒤편, 후암동 미군 8군 뒤편, 노량진-상도동 일대) 그리고 영등포 시장이 해당 장소였다.

54) 「PX 경제」, 『조선일보』, 1969년 3월 27일, 3쪽.

55) 「이천만 원어치 밀수」, 『동아일보』, 1971년 11월 9일, 7쪽; 「영사기 등 대량 밀수」, 『조선일보』, 1971년 11월 10일, 7쪽.

## 2) 비합법 또는 불법 기술 보급의 연결망으로서 '청계천'과 극장

불법 유출된 PX 물건을 취급한 장소 가운데 흥미로운 곳은 아세아극장이었다. 1962년 12월 23일 장사동 156-1번지에서 개관한 아세아극장은<sup>56)</sup> 광장시장과 방산시장 그리고 세운상가 상인과 방문객을 상대로 영업했다.<sup>57)</sup> 개관 첫 영화 <새댁>(이봉래, 1962)이 무려 25일 동안 장기 상영하면서 십여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오락 제공'에 충실한 극장이었다.<sup>58)</sup> 아세아극장은 PX 반출 물품 가운데 전기기구를 전문적으로 취급했다.<sup>59)</sup> 아세아극장과 함께 특기할 장소는 라디오부속품 상가를 포함한 청계천 3가의 아세아백화점이었다. '아세아라디오백화점'으로도 불린 해당 건물은 TV와 전축을 비롯해 무전기과 배터리 등 일상 가전을 넘어 각종 전자제품을 거래했다.<sup>60)</sup> 아세아백화점은 아세아극장을 지척에 둔 장사동 159번지에서 영업했는데,<sup>61)</sup> 해당 백화점과 아세아극장이 전자제품을 취급한 것은 세운상가를 배경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세운상가는 1967년 주상복합건물 설립으로 널리 알려졌다.<sup>62)</sup> 서울 도심

56) 「전국 극장 순례: 씨비스와 명화의 전당 아세아극장」, 《영화세계》, 1963년 4월호, 143쪽.

57) 아세아극장은 종로구 장사동 156-1번지에서 개관한 1,324석 규모의 3층짜리 극장이었다. 아세아극장은 개봉관과 재개봉관의 중간 위치의 극장으로 평가되었으며 2001년 문을 닫았다. 주체사체 연구팀, 『양춘·김형중·이지용: 2010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체사> 1960~1970년대 영화관 2 - 서울개봉관을 중심으로』, 한국영상자료원, 2010, 333쪽.

58) 아세아극장은 개관 당시 쿠션 의자를 장착한 초현대식 건물로 안락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면서 여타 개봉관을 압도했다. 대규모 인구가 몰리는 위치에 자리한 까닭인지 "오락 본위"의 한국영화와 "소시민 중심의 건전한 운영"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전국 극장 순례: 씨비스와 명화의 전당 아세아극장」, 《영화세계》, 1963년 4월호, 143쪽.

59) 「PX 경제」, 『조선일보』, 1969년 3월 27일, 3쪽.

60) 1969년 12월 19일 발생한 화재 당시 확인된 가계 숫자만 83개 점포에 달했다. 이들 점포는 아세아백화점 1층에 자리했다. 2층에 아세아다방과 카바레 등이 있었으며 3층에 동아극장이 자리했다. 아세아백화점은 총 4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장사동 아세아백화점 라디오부속품 상가 전소」, 『매일경제』, 1969년 12월 20일, 7쪽; 「대목...아세아백화점에 불」, 『조선일보』, 1969년 12월 20일, 3쪽.

61) 「강력범죄」, 『동아일보』, 1961년 4월 2일, 3쪽.

62) 세운상가는 종로-청계천-을지로-퇴계로에 이르는 서울 도심을 1km 가까이 가로지르는 13층 높이의 건축물이었다. 세운상가는 종로 쪽 현대상가를 포함해 총 4개의 건물군과 8개의 상가로 구성되었다. 이동연, 「세운상가의 근대적 욕망: 한국적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변형과 굴절」,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82, 한국사회사학회, 2009, 256쪽.

을 1km 가까이 가로지르는 13층 높이의 세운상가는 당시 동양 최대 단일 상가 규모를 자랑하며 등장했다. 하지만 1966년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종료된 시점에 계획된 세운상가는 당시 저개발 국가였던 한국의 수준에서 정상적인 개발과정이 아니었다. 그곳은 ‘대중의 욕망을 투사하는 유토피아 공간’이자 ‘조국 근대화’의 이정표로 제시되었다.<sup>63)</sup> 세운상가의 설립보다 앞서 주목할 것은 영사 기계 수리와 제작 등 기계공구상가가 밀집한 장사동이었다. 세운상가가 들어선 곳이었다.

청계천 3가~4가에 자리한 장사동 일대는 1940년대 후반부터 ‘전기고물상’ 가게를 형성했으며,<sup>64)</sup> 해방과 함께 일본 군용 무선기와 부품이 등장하고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미군 무선기기와 부품을 파는 노점상이 몰려들었다.<sup>65)</sup> 장사동에서 거래된 물건들은 미군 부대에서 유출된 폐품이 주류를 이뤘지만, 부대에서 “몰래 빼내온 물건도 꽤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었다.<sup>66)</sup> 즉, 근대화의 상징인 세운상가의 역설은 그곳이 미군 부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한 밀수품을 유통한 연결고리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치깡패’ 유지광이 아세아백화점에서 전기상을 운영했던 사실로 입증된다. 유지광은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으로부터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4년 만에 감형을 받고 1965년 ‘5·16특사’로 출소한 이후 전기 가게를 운영했다. 그는 고을의 대부업을 병행하면서 제때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을 감금하거나 린치를 저질렀다.<sup>67)</sup> 이는 1960년대 초반까지 청계천 주변과 장사동 일대 노점 상인들로부터 ‘자릿세’를 받는 불법 행위의 재연이었다.<sup>68)</sup>

청계천 전자상가에 터를 잡은 유지광의 존재는 영사 기자재를 비롯한 밀수품의 비합법적 유통을 이해하는 데 참고 지점을 제시한다. 유지광은 1955

63) 이동연, 「세운상가의 근대적 욕망: 한국적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변형과 굴절」,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82, 한국사회사학회, 2009, 261-267쪽.

64) 청계천박물관, 『청계천 기계공구 상가: 장사동·입정동·산림동』, 청계천박물관, 2021, 56쪽.

65) 청계천박물관 편,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봉어뺨들에서 인공위성까지』, 청계천박물관, 2021, 7쪽.

66) 서정욱 지음, 『미래를 열어온 사람들: 통신과 함께 걸어온 길』, 한국경제신문사, 1996, 41쪽.

67) 「유지광씨 구속 폭력혐의」, 『조선일보』, 1970년 8월 21일, 7쪽; 「유지광씨 구속 폭력혐의」, 『동아일보』, 1970년 8월 21일, 7쪽.

68) 청계천박물관, 『청계천 기계공구 상가: 장사동·입정동·산림동』, 청계천박물관, 2021, 66-67쪽.

년 이정재를 우두머리로 내세운 '삼우회'(이후 화랑동지회로 개칭)의 일원으로 활동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삼우회는 동양극장과 중앙극장을 기반으로 활동한 자들로 구성된 폭력집단이었는데,<sup>69)</sup> 유지광과 이정재의 결합은 김두한 중심의 '건중(建中)친목회'와의 연결을 의미했다. 건중친목회(이후 '폭력주식회사'로 개명)는 한국전쟁 휴전과 함께 철수하는 미군이 전쟁 동원 전략 물자를 방매 처분할 때 입찰 경쟁자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독점적으로 낙찰을 받아 이권을 챙겼다.<sup>70)</sup> 일상용품을 비롯해 자동차 및 탱크와 같은 군수물자는 영화를 상영하고 극장 건물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청계천 전자상가의 유지광은 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적 연결망을 동원하여 미군 부대 밀수 물자 유통에 관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앞서 영공사가 미국 기자재 모방을 통해 영화 기자재 수리와 제작을 수행한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밀수품의 집결지 가운데 하나인 '청계천'은 영화 산업과 공공연한 밀월 관계를 형성했다. 1962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화제작에 있어서 연기와 소도구 그리고 카메라와 조명 등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12개 부문 이외에 "영화계의 이면에 숨어있는 영원히 노출될 수 없는 영화인들"이 '영화제작인 수호만큼' 서울에 존재했다. 그들은 정식 무역상부터 '보따리 장사'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형성했다. '노출될 수 없는' 영화인들로 소개된 자들은 미군 부대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물건을 취급하면서 제작 현장과 연결된 납품업자들이었다. 단성사를 중심으로 종로 3가 일대의 다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들은 영화 기계와 부속품이 필요한 영화인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면 장사동과 예지동 근처 청계천 고물상 좌판을 살살이 훑었다. 그리하여 "미군 기관에서 내어다버린 쇠붙이가 여기를 무대로 해서 한국영화계에 데뷔(?)"하면서 "한국의 영화계는 청계천가의 고물상에게까지 뺏어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sup>71)</sup>

69) 유지광, 『대명(1)』, 홍익출판사, 1984, 86~90쪽.

70) 유지광, 『대명(1)』, 홍익출판사, 1984, 215~222쪽.

71) 「영화계의 이면 (완) 영화인 아닌 영화인들」, 『조선일보』, 1962년 5월 28일, 3쪽.

### 3) 경제개발 논리와 영사기술 보급의 비/합법성

상영 관련 기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순업 흥행사들이 영사 관련 일체의 기자재를 구매할 때 항상 언급하는 장소가 “서울 청계천”이었다. 영사 기자재 구매는 거래 가게의 상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문 중개인을 통해서 이뤄졌다. 장사동 일대 상가들이 음향기와 발전기 그리고 영사기를 판매하면서 ‘청계천’은 신기술의 유통과 보급을 은유하는 장소가 되었다. 순업 흥행사와 ‘청계천’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는데, 이는 그들이 보유한 영사 기자재 때문이었다. 1950년대 후반까지 비도시 순업의 영화상영에 변사 연행을 동반한 이유는 비도시 관객에게 공연성이 호소력을 발휘한 까닭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노쇠한 영사기와 불량한 필름 상태에서 기인했다. 순업은 1970년대까지도 비도시 지역의 주요한 영화관람 방식 가운데 하나였다. 영화상영 중단은 순업의 낮은 흥행 성적 또는 불신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순업은 영사기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없었다. 도서(島嶼) 지역을 순회하는 업자들의 경우, 기기 고장에 따른 원거리 지역 왕복 경비와 수리비 그리고 예정된 상영 취소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순회 영업의 지속을 장담할 수 없었다.<sup>72)</sup>

극장 역시 영사기술 문제에서 비껴갈 수 없었다. 극장에서 기술적인 문제와 마주하는 유일한 사람은 영사기사였다. 그들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라디오 조립 또는 송수신기 수리에 관심을 보인 자들이었다. 하지만 과학 또는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제도 교육을 받은 자들이 드물었고 초등학교 교육에 그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상영 현장 책임자로서 영사기사는 영사 기계 관련 정보 또는 학습에 절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인천 개봉관 영사기사 정승훈은 서구의 앞선 기술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독학으로 영사

72) 1970년대 전남 비도시 지역 일대에서 순업 흥행사로 일한 김창중(1932년생)은 신안군 하의도에 도착한 첫날 발전기 고장으로 영업을 포기하고 목포로 돌아왔다. 그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광주시 개봉관과 소극장에서 극장 간관화가로 일했다. 1970년대 극장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일 자리를 잃게 되자 단기간이나마 흥행업에 종사했다. 위경혜, 『오락과 예술 사이 극장 간관화가』,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88~90쪽과 194쪽.

기술을 습득하는 데 매진했다.<sup>73)</sup> 제2차 세계대전 배경 영화를 상영하는 도중 미국과 독일 함대의 전투 장면을 보면서 들었던 기술 후진국 한국에 대한 그의 “서글픈” 감정은 그러한 욕망을 더욱 부추겼다.<sup>74)</sup>

영화라는 신기술에 대한 경험과 그것의 확산에 대한 열망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사기의 획득과 사용 그리고 극장 운영에 대한 관대한 태도로 이어졌다. 1950년대 중후반 우연한 계기로 부여군 부여극장을 운영한 황재석의 사례는 이를 증명한다. 그는 일제강점기 이래 방치된 부여극장의 창고에서 35mm 영사기를 발견하고 이를 수리하여 영화를 상설적으로 상영했다. 그는 이전까지 간헐적으로 들린 16mm 순회 영화와 다른 차원의 관람 경험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여군수와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 표창까지 받았다.<sup>75)</sup>

이와 같은 상영 현장의 기술 담론과 이벤트는 과학기술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정책과 관련이 깊다. 1950년대 영사기를 포함한 영화 관련 기자재의 불법적 유통은 당시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서 높은 실업률과 낮은 국민소득 등을 이유로 미국의 무상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경제 상황에서 기인했다.<sup>76)</sup> 1960년대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경제개발 논리에 귀속된 과학기술 정책으로 기초 연구 인프라의 축적보다 기능공 양산과 해외로부터 기술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기능공 양산 정책은 1970년대 초반 중화학 공업화 정책 및 군대의 과학화 문제와 결합하면서 동양 최대를 표방한 금오공고 출신 부사관이 민간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무지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

73) 1960년대 인천시 인천키네마와 동방극장에서 영사기사로 일한 전승훈(1942년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사기가 고장 날 때마다 극장 인근 라디오 가게의 기술자를 불러야 했다. 이에 그는 영사기 음향 증폭 기술을 독학으로 깨우치고 라디오와 TV 작동 원리까지 터득했다. 위경혜, 「인천의 극장 문화 - 한국전쟁 이후~1960년대를 중심으로 -」, 『한국극예술연구』 53, 한국극예술학회, 2016, 80~81쪽.

74) 이는 영사기사 전승훈(1942년생)의 〈상과 하 Enemy Below〉(1957)에 관한 구술 증언을 통해 확인된다. 해당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구축함과 독일 잠수함의 전투 장면을 포함하여 1958년 아카데미 특수효과상을 수상했다. 전승훈은 영화를 영사하는 도중 ‘우리나라는 언제 저런 배를 만드느냐?’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위경혜, 「인천의 극장 문화 - 한국전쟁 이후~1960년대를 중심으로 -」, 『한국극예술연구』 53, 한국극예술학회, 2016, 80~81쪽.

75) 위경혜, 「극장 문화의 지역성 - 한국전쟁 이후 대전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학논총』 36권 2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15쪽, 각주 88).

76) 김세중, 「5·16 - 산업화 민족주의 혁명」, 정성화 편, 『박정희 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선인, 2005, 81쪽.

황에서 기능공들은 스스로 문제대처 능력을 연마하면서 단순한 기술 습득 상태를 벗어나는데, 그것은 시스템 또는 교육이 아니라 독학으로 한계를 돌파하는 방식이었다.<sup>77)</sup>

요컨대, 전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청계천’은 선진 기술의 습득과 모방 공간이자 기술 발달을 통한 근대화 실현을 꿈꾸는 장소였다. 그곳은 영사기 유통을 담당했고, 낙후한 기술을 극복하려는 현장 기술자의 욕망을 추동했다. 이에 더하여 지역 사회 권력자들은 앞선 기술을 선망하고 기술 보급자를 격려했다. 이러한 상영 현장의 욕망은 과학기술 지식 소개 및 정책 수립에 관여한 과학 관료 또는 엘리트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종합교양지 《사상계》에 실린 과학기술의 표상은 ‘근대화의 핵심 요건’이며 ‘냉전의 전선이자 무기’이고 ‘국가발전의 동력’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상호연결된 형태로 제시되었다.<sup>78)</sup>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논리는 과학기술에 대하여 편향적이었다. 해당 정권은 1961년 제1차 기술진흥5개년계획 수립과 기술관리국 설치와 함께 과학기술에 관심을 보였지만, 그것은 경제개발계획을 보완하는 의도였고 과학을 배제한 기술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또한, 기술진흥의 중심 목표는 공업학교의 기술교육 강화와 기술공 중심의 기술계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었으며, 산업발전에 관련된 기술은 외국으로부터 도입을 통해 마련했다. 과학기술 정책은 경제개발과 직접 연결된 방안만 고수한 것이었다.<sup>79)</sup> 따라서 과학기술의 국산화는 요원했으며 그것을 시도한 자들은 현실의 필요성에 직면한 현장의 인력들이었다. 다시 말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인프라와 기반 시설의 미비 그리고 냉전체제 아래 경제개발 논리는 영화 기자재 관련 기술의 비/합법적인 보급과 확산을 가져온 환경이었

77) 임태훈, 이영준, 최형섭, 오영진, 전치형 저자(글)·인문학협동조합 기획, 『한국 테크노컬처 연대기: 배반당한 과학기술 입국의 해부도』, 2017, 205~217쪽.

78) 김상현, 『『사상계』에 나타난 과학기술의 표상 - 1950년대~1960년대 초 남한 과학기술 담론의 한 단면 - 』, 『한국학연구』 5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0, 633~662쪽.

79) 1965년 박정희의 미국방문 이듬해 이뤄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 역시 산업기술과 직결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김근배, 『과학기술입국의 해부도 - 1960년대 과학기술 지형』, 『역사비평』 85, 역사문제연구소, 2008, 238~250쪽.

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정권에 기생한 잔류 집단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 미군 부대 밀수품 유통은 기술 확산의 폭력성을 함축했다. 불법으로 유통된 영화 기자재는 '기술을 통한 근대화의 유도피아'를 꿈꾸었던 '청계천'의 실체였다.

## 5. 맺음말

이 글은 국민국가 건설과 냉전체제라는 거시적인 맥락 가운데 영사기를 비롯한 영화 기자재를 중심으로 기술 보급의 구체적인 양상과 성격을 밝혔다. 1950년대 전후 국제적인 에이전시의 국내 영사기 보급은 미디어 환경 구축의 실행 단계에서 의도와 다르게 전용되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국민 단속 매체로서 영화를 동원하면서 영사기를 수입한 데 반하여, 영화산업은 제작과 상영을 위한 현실적인 이유에서 사적인 네트워크를 동원해 영화 기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왔다. 낙후한 과학기술과 영화산업 현장의 낮은 기술력을 이유로 영사기를 포함한 영화 기자재는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되었다. 특히, 냉전체제의 지표인 미군 부대를 통해 '청계천' 일대 전자상가로 흘러 들어간 밀수품은 냉전기 영화상영 기술의 의미를 드러냈다.

이 글은 영화상영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인 영사기를 비롯한 영화 기자재에 집중하여 한국영화 기술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전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영화상영의 전국화를 달성한 영사기 보급의 실제 양상과 그에 따른 기술 확산의 성격을 재구성한 점 역시 영화사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하지만 비합법적 유통 방식을 군부대 밀수와 사적인 연결망에 국한한 점에서 향후 다층적 통로에 관한 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영화 기자재 보급을 둘러싼 국가와 영화산업 그리고 민간 영역 사이 갈등과 협동 등 역동적인 양상에 대하여 냉전체제 변화에 따른 시기별 분석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1. 자료

『경향신문』, 1950~1965년.

『동아일보』, 1950~1971년.

『매일경제』, 1967~1969년.

『조선일보』, 1938~1971년.

영화세계사, 《영화세계》, 1963년 4월호.

『문화영화 독도 상연 보급에 관한 건』, 1954, 공보처, 국가기록원(BA0791572).

공보부 조사국, 『각종홍보선전간행물배포: 각종영사반순회상영실태조사보고서』 1961년 9월 12일 현재.

박종민 구술·위경혜 면담, 『한국전쟁이후 1960년대 이동영사 활동 증언 자료 수집: 전라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국사편찬위원회, 『2009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OH\_09\_019\_박종민\_11』, 1-87.

박진희, 『박남기』, 『2020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생애사>』, 한국영상자료원, 2020.

이기화 구술·위경혜 면담, 『한국전쟁이후 1960년대 이동영사 활동 증언 자료 수집: 전라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국사편찬위원회, 『2009년도 구술자료수집사업 OH\_09\_019\_이기화\_11』, 1-70.

주제사채록연구팀, 『양춘·김형중·이지룡: 2010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1960~1970년대 영화관 2 - 서울개봉관을 중심으로』, 한국영상자료원, 2010.

한국영상자료원, 『2005년도 구술채록 자료집 전조명 (촬영)』, 한국영상자료원, 2007.

\_\_\_\_\_, 『안창복: 2011년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생애사>』, 한국영상자료원, 2011.

채록연구자 권용숙/기획편집 한국영화사연구소, 『김수용: 2012년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생애사>』, 한국영상자료원, 2012.

### 2. 단행본

김천욱,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사』, 해남, 2002.

서정욱, 『미래를 열어온 사람들: 통신과 함께 걸어온 길』, 한국경제신문사, 1996.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1948제헌선거에서 2007대선까지』, 역사비평사, 2008.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기술사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2.

위경혜, 『오락과 예술 사이 극장 간판화가』,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유지광, 『대명(1)』, 홍익출판사, 1984.

이근미, 『그를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김장환 목사 이야기(上)』, 조선일보사, 2000.

임태훈·이영준·최형섭·오영진·전치형 저자(글), 인문학협동조합 기획, 『한국 테크노컬처 연대기: 배반당한 과학기술 입국의 해부도』, 2017.

정성화 편, 『박정희 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선인, 2005.

청계천박물관, 『청계천 기계공구 상가: 장사동·입정동·산림동』, 청계천박물관, 2021.

청계천박물관 편, 『청계천 기계공구상가: 붕어뱀물에서 인공위성까지』, 청계천박물관, 2021.

한국영상자료원 엮음, 『한국영화사 구술총서 02: 한국영화를 말한다 -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1』, 도서출판 이채, 2005.

### 3. 논문

- 공영민, 「1950년대 저개발 세계의 기초교육과 시청각교육 - 유네스코의 활동과 한국 신생활교육원을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65,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2, 373~406쪽.
- 김근배, 「과학기술입국의 해부도 - 1960년대 과학기술 지형」, 『역사비평』 85, 역사문제연구소, 2008, 236~261쪽.
- 김상현, 「『사상계』에 나타난 과학기술의 표상 - 1950년대~1960년대 초 남한 과학기술 담론의 한 단면 - », 『한국학연구』 5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0, 633~662쪽.
- 위경혜, 「1950년대 '굿쟁이' 이동영사 - 유랑예인 연행과 시각적 근대의 매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5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2012, 197~228쪽.
- \_\_\_\_\_, 「인천의 극장 문화 - 한국전쟁 이후~1960년대를 중심으로 - », 『한국극예술연구』 53집, 한국극예술학회, 2016, 44~88쪽.
- \_\_\_\_\_, 「극장 문화의 지역성 - 한국전쟁 이후 대전을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6권 2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91~124쪽.
- 이동연, 「세운상가의 근대적 욕망: 한국적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변형과 굴절」,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82, 한국사회사학회, 2009, 249~282쪽.
- 이순진, 「한국전쟁 후 시청각 미디어의 배치와 냉전의 미디어 네트워크」, 『한국학연구』 4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8, 85~118쪽.
- 허은, 「박정희 정부시기 농촌사회 재편과 지역 총력안보체제 구축 - 구성면 면정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 », 『사총(史叢)』 8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5, 36~49쪽.
- Gregory A. Waller, "Projecting the Promise of 16MM, 1935-45", (Eds.) Charles R. Acland & Haidee Wasson, *Useful Cinema*, Duke University Press, 2011, pp. 125-148.

### 4. 구술자료

이양두(1953년생, 전 광주광역시 중앙극장 직원)의 구술. 구술 일자 2023년 7월 15일.

## Movies, Film Projectors, and ‘Cheonggyecheon’

- Illegality/legality of the Diffusion of Film Screening Technology during the Cold War Period -

Wee, Gyeong-hae\*

This article examines the nature and meaning of technological diffusion in the nation-state order under the Cold War regime, focusing on film equipment from the end of the Korean War to the early 1970s. At the time, films were screened across the country regardless of theater type as they were mobilized to strengthen national identity and establish a cultural order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The demand for film projectors created by widespread film screenings led to a proliferation of film-related technology. The state sought projectors as a means of asserting power, while the film industry required equipment to meet production and screening needs.

However, the country's reliance on imported projectors, driven by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and biased technology policies favoring mass production of skilled workers, posed challenges. The film industry, facing limit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domestically, formed private networks with the Japanese film industry to import equipment. Importantly, the distribution of film equipment in the private sector, crucial for the film industry, relied heavily on connections with US military units, leading to instances of smuggling through US military bases or Japan. The role of the Cheonggyecheon, an electronics shopping mall, is particularly notable as a hub facilitating the dissemination of film equipment, production, and technology. It served as a

---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nexus where boundaries between legal and illegal activities blurred, reflecting the complex dynamics of technological diffusion during the Cold War period.

In conclusion, the diffusion of film screening technology was shaped by a combin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technology policies, and the dynamics of the film industry, all occurring with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regime.

**Key words:** film projector, film equipment, technology, Cheonggyecheon, illegal/legality, smuggling, U.S. military base, PX, Kang Inoue, Jeon Won-chun